



2004가 기억하는 작가와 책 세상

한의사·건강교육가

이유명호

이제는 '나'에게 집중할 시간 필요,
그래도 그가 멈출 수 없는 이유

여성 몸에 관한 상식을 솔직하고 재미있게 담아낸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은 지난 5월 출간 이후 현재까지도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두루 읽히고 있다. “여자가 행복해지는 행복 건강법”이란 부제에 맞게 여성 몸에 대해 지녔던 무지를 일깨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미 달성한 셈이다. 독자들은 “여자이면서 정작 내 몸에 대해서는 몰랐다” “여성은 남성보다 장기(질)가 하나 더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는 등 다양한 감상을 공유했다. 명쾌한 해설이 독자들을 그야말로 ‘꽃피는 자궁’으로 초대했다.

이유명호 씨는 이러한 반응에 대해 그저 덤덤하다. “내가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다행이다”는 반응이

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에 앞서 낸 《살에게 말을 걸어봐》(2001, 이프)도 다이어트와 건강한 삶을 위해 가져야 할 정신적인 마음가짐을 다룬 책이다. 그가 낸 두 권의 책은 모두 몸과 건강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목적으로 한다.

한의사로서 한의원을 꾸려가고 있지만 실제로 한의원에 있는 날은 일주일에 닷새도 되지 않는다. 건강교육가로서 그를 원하는 자리가 많이 있는 탓이다. 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개발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학교에서 성평등이나 여성학을 주제로 하는 강의에 초대받는다. 요즘에는 KBS 라디오에서 특강을 맡아 30분짜리 강의도 녹음하고 있다. 4회로 완결되는 강의인지라 ‘세상이 알아주면 좋을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그래서 택한 것이 ‘할머니 잔혹사’와 ‘환경은 인류의 지혜’다. 할머니를 ‘늙어서 쓸모없는 노인네’라고 여기는 ‘웃기지도 않은 생각’에 반대하며 ‘혜경’이라고 불리는 환경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다룬 강의들이다. 정자와 난자의 만남은 ‘삼입’이 아닌 ‘흡입’이라는 이론을 강조하면서 호주제와 관련한 얘기도 할 생각이다.

“웃으면서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단순히 사람들 웃기는 한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야 물론 나와서 조금 얘기하면서 한의원 광고만 하면 좋죠. 이걸 옳지 않음 뿐더러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여성성에 대한 부정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구성에 씨와도 친분이 있다는 그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구성에 선생덕에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의 관심을 받게 돼 다행”이라며 “올바른 성에 대해서 그 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라면 나는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올바른 성 지식과 여성성을 알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 그가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 우리 몸과 질병에 관한 지식을 어린이 수준에 맞춘 책을 낸다는 것이다. 엄마가 아이 옆에서 함께 읽고 가르치면 좋을 그런 책이다. 한번 익히면 평생 기억하는 아이들의 속성을 이용해 일찍부터 바른 성 관념을 갖고 자라도록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일주일에 두어 번씩 있는 강의 탓에 너무 피곤해요. 지방에 갈 일이 있을 때는 핑계김에 아들이랑 가서 근처를 다녀보긴 해도 군중 앞에서 말을 많이 하다보니 정작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없어졌어요.”

12월에도 제주대학 강의를 위해 바다를 건넌다고 하니 혼자 떠나는 여행을 소원해 보기엔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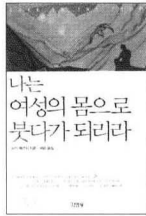
취재 | 홍이현기자 · 사진 | 박신우기자

이유명호가 읽고 권하는 책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비키 매켄지 지음
세동 옮김
김영사
356쪽
값 9,900원



히말라야 설산동굴, 겨우 자기 한몸 앓을 사방 1미터의 혹독한 조건에서의 좌선 묵언 정진 8년. 텐진 빠오 스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마침 한바야도 봉선사에서 열리는 명상회에 참석했다. 종교는 달랐지만 스님의 수행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해발 5,000미터라면 공기도 희박해 사람이 초극정신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제 21세기에 남은 과제는 종교의 성차별이다. 이승에서 죄업을 쌓으면 다음 생애 여자나 신체 불구자로 태어나고, 여자는 공부를 많이 해서 다음 생애 남자로 태어난 뒤에야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된다고 하는 교리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나의 서양 미술 순례

서경식 지음
박이엽 옮김
창비
224쪽
값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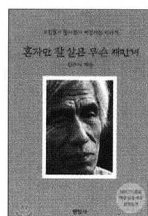


형의 투옥, 가족의 죽음과 해체라는 극한적인 고통으로 경계에 선 저자의 시선은 그림 속의 주인공이나 타인의 고통을 가슴으로 밀바닥까지 이해하고 있다. 예술이 단지 가진 자의 향유품으로 교양을 높여주고 품위를 뒷받침해 주는 자본이 아님을 느끼게 해준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전우익 지음
현암사
122쪽
값 6,500원



자연에서 갈취하고 동식물을 학대하는 지구의 무법자, 인간이 겸손한 세입자여야 함을 강조한다. 어린 나무는 심고 또 심고, 죽은 나무는 깎고 다듬어서 그 모습과 향기를 오래 간직하게 해주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싸고 떠들다가 문득 전우익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엄치없고 계면쩍어 혼자 머리를 쥐어박는다. 이 분에게서 영화 <죽어도 좋아>의 사랑과는 또 다른 열정을 보았다. "이룰 수 없는 소원 한가지는 그분을 팔배개 해서 재우는 것인데 대신 나무 목침을 만들어서 보낸다"는 한 줄. 으이구, 오십줄에도 사랑 사랑, 입만 열면 반복하는 머리 나쁜 이년은 언제쯤 저 경지에 오를꼬.

악법은 법이 아니다

박원순 지음
프레스21
408쪽
값 9,000원



법은 칼이다. 칼자루를 잡은 힘 있는 손과 칼등 위에서 춤을 춰야 하는 힘 없는 국민들이 있다. 국민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는 못하고 권력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법은 바로 잡아야 한다.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사회의식에 뒤쳐진 낡은 법도 고쳐야 한다. 현행 호주제도 역시 일제가 식민지 한국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독립 후, 부계혈통중심의 여성차별적인 호주제도가 채택된 것 자체가 여성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이것이 부분 개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통째로 허물고 양성평등의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할 이유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돈이 좋다

오한숙희 지음
여성신문사
300쪽
값 7,500원



'어디서 여자가 돈을 벌까?' 내가 밥값을 냈을 때 부자남자어른의 일갈이었다. 여자가 남자를 통해 부를

누리고 바깥세상을 접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한번 세상에 나온 이상 사람답게 차별받지 않고 멋지게 살아 보려는 여자일수록 돈이 밥이고 배경이고 소파고 병풍이다. 도둑질과 사기처럼 나쁜 짓만 빼고 열심히 돈 버는 것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정의다.

숲의 생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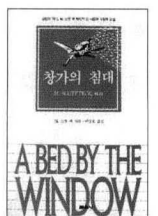
차윤정 지음
웅진닷컴
232쪽
값 15,000원



나무가 열 장의 잎을 생산한다면 두 장은 자신의 성장에, 다른 두 장은 꽃과 씨앗을 만드는 데(생식), 또 다른 두 장은 자기를 지키는 데 쓰는 물질을 만드는 데(방어), 나머지는 스스로 저장되는 몫으로, 숲의 다른 생물들을 위한 것으로 각 두 장씩 쓴다는 말에 경탄과 감사를 느낀다. 봄에 나서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갈무리와 겨울나기를 하는 대목에서는 '식물인간'이란 말은 인간이 오독誤讀한 것이라고 부르짖는다. 식물은 그저 듣고 보도 못하고 숨만 쉬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동물보다 평화롭고 자비로운 지구의 살림꾼인 것을.

창가의 침대

M. 스킷 펙 지음
이상호 옮김
열음사
508쪽
절판



상심이건 배신이건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마음을 닫지 말고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책이다. 의사가 갖춰야 할 도덕심은 몸이 아픈 환자일수록 더욱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 성씨는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동시에 죄의식이나 수치심, 관습이나 윤리보다 근원적이며 본질적이다.